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1.261>

JCCT 2023-1-31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사 화행에 대한 고찰: 직장 인사말 중심 으로

A Study on the Greeting Acts of Chinese Students in Korea: Focused on Workplace Greetings

최용림*

CUI YONGLIN*

요약 본 연구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직장 내 인사 화행에 관한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고생' 과 '인사' 의 특정한 표현에만 집중하고 있거나 교재를 개선하기 위해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직장 내 인사 행위를 화행 이론에 근거하여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고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인과 차이점 및 공통점을 밝히기 위해 제기되었다. 화행 이론의 담화 완성형 테스트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연구방법으로 조사하여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인사표현 중요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인사 화행 전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인사말, 직장, 인사 화행, 중국인 유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speech acts of greetings in the workplace by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South Korea. While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specific expressions of 'hardship' and 'greetings', or have been tailored to improve textbook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lization patterns of greeting actions in the workplace by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based on speech act theory. It seek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Chinese students in Korea and Koreans. The method of the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in speech act theory is used for investigation, review, and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hope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greeting expressions among Chinese students in Korea and to help develop effective greeting strategies.

Key words : Greetings, Workplace, Greeting Acts,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정회원,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19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0일

Received: October 5, 2023 / Revised: October 19, 2023

Accepted: November 10, 2023

*Corresponding Author: cskku13@naver.com

Dept. of Korean, Chung-Ang Univ, Korea

1. 서 론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직장 내 인사 행위를 화행 이론에 근거하여 실현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황병순(1999:13)에서 인사말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일상적인 인사말과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사말로 구분된다.

황병순(1999)은 일상생활에서 인사말을 ‘만날 때’와 ‘헤어질 때’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정한 인사말은 ‘문안 인사’, ‘문병과 문상 인사’, ‘축하 인사(입학, 결혼, 취직, 출산, 생일, 회갑, 정년 퇴임 등)’, ‘새해 인사’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황병순(1999)에서 정리한 인사말 분류 체계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직장에서 어떤 인사 행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화행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는 한국인과 중국인 유학생의 인사표현 양상은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찾고자 한다.

인사란 황병순(1999: 9)에 따르면 ‘인사’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만남과 헤어질 때 안부 등을 주고받는 등의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사 화행 정의는 김미령(2012:11)에 따르면 ‘인사 화행’은 사람을 만나는 상황에서 실제 관계의 유지와 강화, 아니면 새로운 관계의 조화나 상황 증진과 등 친교의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의 기대 방향에 맞게 관심을 표현한다. 그래서 상대가 의미 있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나타내는 일부의 선택적 언어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인사 화행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담화 완성형 테스트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조사를 실시하여 검토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인사말에 관한 선행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모국어 화자, 한국과 중국 대조 분석 등 인사표현 연구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관한 연구는 진관초, 장미미(2022); 조은주, 고은정(2015); 황성연, 하지혜(2023); 김선정, 김예지(2011); 장미미, 진관초(2022) 등이 있다.

진관초, 장미미(2022)는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고생’과 ‘수고’를 중심으로 실험하고 한국인과 비교해서 연구하였다. 한국어 교재에서 인사표현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어

말뭉치를 사용해서 검토하고 관련 표현을 제시하였다.

조은주, 고은정(2015)은 일반 한국인과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주제로 연구하였다. 한국인 20명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 20명 대상으로 조사하고 인사 양상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 국적별을 밝히지 않아서 아쉬운 점을 남겼다.

황성연, 하지혜(2023)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으로 연구하였다. 설문 조사를 통해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표현을 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설문 조사하고 학습자의 실현 양상도 분석하면 더욱 좋은 것 같다.

김선정, 김예지(2011)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KL-60명), 중국어 모국어 화자(CNS-60)명과 한국인 모국어 화자(KNS-60명)이다. DCT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에서 중국어 모국어 화자는 허리를 굽히는 것과 고개를 숙이는 등의 공손한 인사 행위는 자주 사용하지 않다고 하였다. 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보다는 비교 적으로 공손하게 인사를 한다는 결과가 많았다고 하였다.

장미미, 진관초(2022)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수고와 고생에 대해 표현의 담화 기능을 바탕으로 다루었다.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60명과 한국인 모국어 화자 60명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따라서 현재 교재에 있는 수고와 고생 관련 표현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자주 나타난 오류 인사 현상의 대응된 중국어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다음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사용한 인사표현 대조 분석연구이다. SUN FENGWEI(2019)에서 한국과 중국 인사표현 대조하여 만남과 헤어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인사표현의 기능별로 대조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나타난 원인을 검토하지 않아서 아쉬운 점을 남겼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인사표현에 관한 연구이다. 박광규(2012)는 한국인 대상으로 일상의 인사표현을 연구하였다. 전국 남, 여 각각 3000명씩 총 6000명 대상으로 촬영 및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세대별, 성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

다. 결론은 상하관계, 친소관계, 사회계층에 따라 인사 표현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인 10명과 한국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30명 대상으로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진행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직장 인사표현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인사표현의 특징

김미령(2012)에 따르면 인사 화행은 서로 익숙한 사람부터 알지 못한 사람까지 여러 특징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는 말하는 사람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논의하여 자세한 특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일반적 특징은 만남의 시작단계와 끝나는 단계에서 실현되길 요구하는 사회문화적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일반적 특징은 인사화행은 친교적 기능(phaticfunction)을 중심으로 실행하지만, 상황 영역에 따라 그 밖의 기능도 다르게 실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고, 언어표현을 통해 복합적인 기능을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인사화행은 만날 때나 듣는 자의 좋은 일에 관해서는 반가움 등의 기쁨 정서를 표현한다. 따라서 헤어질 때나 듣는 자의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아쉬움 등의 슬픔 정서를 표현하여, 상황에 대한 선택적 정서를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네 번째는 인사 화행은 상대의 영역 안에서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는 상대가 같은 영역 범위에 있어도 이전 만날 때 시간 격차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반면 인사 화행은 상황에 따라 개별 특징도 있다. 첫 번째는 인사 화행은 상대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관습적인 표현하고 비관습적인 표현 중에 잘 선택되는 표현이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인사 화행은 상대의 영역 범위에 따라 이의 형성이 꼭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구분을 된다고 하였다. 세 번째는 표현에 대한 화자의 특정한 목적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III. 인사표현 양상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심층 인터뷰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시작하여 2023년 6월까지였다. 따라서

조사의 사용한 자료는 국립국어연구원(1992)의 <표준 화법 해설>, 국립국어원(2011) <표준 언어 예절>과 장미미, 진관초(2022) 등 논문을 참고하여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작성하고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10명의 남성과 여성은 각각 5명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나 직장 경력이 있는 중국인 유학생 30명을 선정하였고, 남성과 여성은 각각 15명이고 총 40명이다. 실험을 참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4년 이상 자는 76%이고, 나머지는 15%와 9%는 3년 이상 및 2년 이상을 한국어 공부하였다고 한다. 더불어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6급을 보유한 자는 92%를 차지하였고 8%는 시험을 참여하지 않거나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직장에서 어떤 인사말을 사용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담화 완성형 테스트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는 한국인이 실제 직장에서 어떤 인사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설문 결과에 따라 중국인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3.1. 인적 사항

한국인 모어 화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고, 20대 4명, 30대 4명과 40대 2명이다. 따라서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사람은 8명이고, 없는 사람은 2명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사람은 8명이고, 반면 해당 경력이 없는 사람은 2명이다. 또는 조사에 따라 대학교 학사과정 졸업(재학)자는 5명이고,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재학)자는 3명이고,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재학)자는 2명이다.

제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결과에 따라 남성 15명과 여성 15명이고, 20대 21명, 30대 4명과 40대 5명이다. 따라서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사람은 8명이고, 없는 사람은 2명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 경력이 있는 사람은 25명이고, 반면 해당 경력이 없는 사람은 5명이다.

학력 조사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는 4명이고, 대학교 학사과정 졸업(재학)자는 2명이고,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재학)자는 17명이고,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재학)자는 7명이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취득하지 않는 사

람 2명이고, 3급을 취득한 자는 0명이고, 4급을 취득한 자는 2명이고, 5급을 취득한 자는 6명이고, 6급을 취득한 자는 20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시간 조사에 따라 1년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은 6명이고, 2년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은 6명이고, 3년 이상을 거주하는 사람은 4명이고, 4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3.1. 조사 양상

한국인과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직장에 관한 인사 표현의 조사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의 비교 양상

Table 1. 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morning greetings made to colleagues upon arriving at work.

No.1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말(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morning greetings made to colleagues upon arriving at work.)			
	① 안녕하세요	② 안녕하십니까	③ 안녕하셨습니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10	0	0	0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24	5	1	0

위 <표 1>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답은 24명이고,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는 답은 5명이고, ‘안녕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명이다.

표 2.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다음 날 휴가를 떠나기 전 직장 동료에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2. 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to colleagues before leaving for vacation using annual leave on the next day.

No.2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다음 날 휴가를 떠나기 전 직장 동료에게 하는 인사말(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to colleagues before leaving for vacation using annual leave on the next day.)			
	① 고생하세요	② 고생 많으세요	③ 수고하세요	④ 기타
한국인 (Korean)	0	0	9	1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7	9	10	4

한국인 (Korean)	0	0	9	1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7	9	10

위 <표 2>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다음 날 휴가를 떠나기 전 직장 동료에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답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한명은 ‘먼저 가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수고하세요’라고 하는 답은 10명이고, ‘고생 많으세요’라고 하는 답은 9명이고, ‘고생하세요’라고 하는 답은 7명이다. 그리고 기타를 선택한 사람은 4명이고 각각 ‘수고하십시오, ○○○뵙게요, 고생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3. 회사에서 회의가 마무리되고 회의 참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3. 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by meeting participants when a meeting concludes and they stand up from their seats.

No.3	회사에서 회의가 마무리되고 회의 참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는 인사말(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by meeting participants when a meeting concludes and they stand up from their seats.)			
	① 수고하셨습니다	② 고생하셨습니다	③ 내일/다음에 뵙겠습니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10	0	0	0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15	9	6	0

위 <표 3> ‘회사에서 회의가 마무리되고 회의 참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5명이고, ‘고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9명이고, ‘내일/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6명으로 나타났다.

표 4. 회식할 때 부장, 과장, 대리 등 관리자가 부하 동료에게 술잔을 들어 건배 시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4. In a company dinner,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by managers like department heads, section chiefs, and assistants to their junior colleagues while raising a glass for a toast.

No.4	회식할 때 부장, 과장, 대리 등 관리자가 부하 동료에게 술잔을 들어 건배 시 하는 인사말(In a company dinner,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by managers like department heads, section chiefs, and assistants to their junior colleagues while raising a glass for a toast.)			
답안(Answer)	① 고생들 많았어요	② 수고했어요	③ 고생들 많았어	④ 기타
한국인 (Korean)	5	0	5	0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7	13	10	0

위 <표 4> ‘회식할 때 부장, 과장, 대리 등 관리자가 부하 동료에게 술잔을 들어 건배 시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고생들 많았어요’과 ‘고생들 많았어’라고 하는 답이 각각 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수고했어요’라고 하는 답은 13명이고, ‘고생들 많았어’라고 하는 답은 10명이고, ‘고생들 많았어’라고 하는 답은 7명으로 나타났다.

표 5. 회사의 관리자로서 다른 팀원에게 발표 자료를 받을 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5. As a company manager,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when receiving presentation materials from other team members.

No.5	회사의 관리자로서 다른 팀원에게 발표 자료를 받았을 때 하는 인사말(As a company manager,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when receiving presentation materials from other team members.)			
답안(Answer)	① 수고했어	② 수고했어요	③ 수고하셨습니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1	9	0	0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10	9	11	0

위 <표 5> ‘회사의 관리자로서 다른 팀원에게 발표 자료를 받았을 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수고했어요’라고 하는 답이 가장 많았다. 또는 한명은 ‘수고했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1명이고, ‘수고했어’라고 하는 답은 10명이고, ‘수고했어요’라고 하는 답은 9명으로 나타났다.

표 6. 직장에서 상사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상사에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6. 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to a superior who is still present when leaving earlier than the superior.

No.6	직장에서 상사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상사에게 하는 인사말(In the company, the greetings made when leaving work earlier than a superior who is still present.)			
답안(Answer)	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② 내일 뵙겠습니다	③ 먼저 가보겠습니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0	10	0	0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8	8	14	0

위 <표 6> ‘직장에서 상사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상사에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4명이고,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8명이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8명으로 나타났다.

표 7.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동료에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7. 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to colleagues who are still working when leaving earlier than others.

No.7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동료에게 하는 인사말(In a company, the typical greeting made to colleagues who are still working when leaving earlier than others.)			
답안(Answer)	① 먼저 가보겠습니다	② 수고하셨습니다	③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9	0	0	1

유학생 (Internati onal Stu dent)	13	7	10	0
--	----	---	----	---

위 <표 7> ‘직장에서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동료에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3명이고, ‘먼저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0명이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7명으로 나타났다.

표 8. 직장에서 멀리서 방문하러 온 거래처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8. 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when welcoming clients who have visited from afar.

No.8	직장에서 멀리서 방문하러 온 거래처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말(In a company, the typical greeting given when welcoming clients who have visited from afar.)			
답안(Answer)	① 오시느라고 생많으셨습니다	②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③ 오시느라고 생하셨습니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7	3	0	0
유학생 (Internati onal Stu dent)	8	19	2	1

위 <표 8> ‘직장에서 멀리서 방문하러 온 거래처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오시느라고 생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7명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답은 3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오시느라고 생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2명이고, ‘오시느라고 생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8명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답은 19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9. 회사 등 장소에서 직장 환송회에서 후배가 사직한 선배에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9. In a company or similar setting, the comparison of farewell speeches given by juniors to a senior colleague who has resigned, during a workplace farewell party.

No.9	회사 등 장소에서 직장 환송회에서 후배가 사직한 선배에게 하는 인사말(In a company or similar setting, the typical greeting or farewell speech given by a junior to a senior colleague who has resigned, during a workplace farewell party.)
------	---

유학생 (Internati onal Stu dent)	8	15	7	0
답안(Answer)	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② 그동안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③ 감사합니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0	10	0	0

위 <표 9> ‘회사 등 장소에서 직장 환송회에서 후배가 사직한 선배에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그동안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5명이고,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8명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답은 7명으로 나타났다.

표 10. 회사에서 회사 업무가 끝나고 퇴근 준비 중인 직에게 상사가 하는 말의 비교 양상
Table 10. In a company, the comparison of remarks made by a superior to an employee who is preparing to leave after completing the day's work.

No.10	회사에서 회사 업무가 끝나고 퇴근 준비 중인 직원에게 상사가 하는 말(In a company, the typical remark a superior makes to an employee who is preparing to leave after completing the day's work.)			
답안(Answer)	① 수고했어	② 내일 봐	③ 수고했어요	④ 기타
한국인 (Korean)	6	0	4	0
유학생 (Internati onal Stu dent)	12	8	10	0

위 <표 10> ‘회사에서 회사 업무가 끝나고 퇴근 준비 중인 직원에게 상사가 하는 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수고했어’라고 하는 답은 6명으로 나타났고, ‘수고했어요’라고 하는 답은 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내일봐’라고 하는 답은 8명이고, ‘수고했어요’라고 하는 답은 10명이고, ‘수고했어’라고 하는 답은 12명으로 나타났다.

표 11. 식당 등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11. In a restaurant or similar venue,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to customers during the course of working a part-time job.

No.11	식당 등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말(In a restaurant or similar venue, the typical greeting made by a part-time worker when welcoming customers during their shift.)			
	① 어서 오십시오	② 어서 오세요	③ 어서 오십시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4	6	0	0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2	22	6	0

위 <표 11> ‘식당 등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답은 6명으로 나타났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답은 4명으로 나타났고, 반면 제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답은 2명이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답은 6명이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답은 22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12. 아르바이트가 마무리되고 먼저 퇴근하려는 알바이 사장님께 인사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12.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by a part-time worker to the boss when finishing their shift and preparing to leave before others.

No.12	아르바이트가 마무리되고 먼저 퇴근하려는 알바생이 사장님께 인사하는 인사말(The comparison of greeting a part-time worker gives to the boss when finishing their shift and preparing to leave before others.)			
	① 내일 뵙겠습니다	② 먼저 가보겠습니다	③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10	0	0	0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13	9	7	1

위 <표 12> ‘아르바이트가 마무리되고 먼저 퇴근하려는 알바생이 사장님께 인사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

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7명이고,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9명이고,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하는 답은 13명으로 나타났다. 또는 한명은 기타를 선택하여 ‘먼저 가볼게요,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13. 식당에서 손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13. In a restaurant, the comparison of greetings made by a part-time worker to customers as they take their seats.

No.13	식당에서 손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인사말(In a restaurant, the typical greeting a part-time worker gives to customers when they take their seats.)			
	①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② 무엇을 드릴까요	③ 주문하시겠습니까	④ 기타
한국인 (Korean)	0	1	1	8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3	12	13	2

위 <표 13> ‘식당에서 손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무엇을 드릴까요’하는 답은 1명으로 나타났고, ‘주문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답은 1명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8명으로 기타로 선택하여 ‘주문하시겠어요’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제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주문하시겠습니까’라고 하는 답은 13명이고, ‘무엇을 드릴까요’라고 하는 답은 12명이고, ‘무엇을 드리겠습니까’라고 하는 답은 3명으로 나타났다. 또는 2명은 기타를 선택하여 각각 ‘주문 도와드릴까요?’와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14. 식당 등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중에 손님과 작별할 때 하는 인사말의 비교 양상

Table 14. In a restaurant or similar venue, the comparison of farewells given to customers by a part-time worker during their shift.

No.14	식당 등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중에 손님과 작별할 때 하는 인사말(In a restaurant or similar venue, the typical greetings made by a part-time worker to customers when parting during their shift.)			
	① 안녕히 가십시오	② 안녕히 가세요	③ 안녕히 가십시오	④ 기타
한국인 (Korean)	4	6	0	0
유학생 (International Student)	5	23	2	0

위 <표 14> ‘식당 등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중에 손님과 작별할 때 하는 인사말’에 따라 한국인은 설문 조사에서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답은 6명으로 나타났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답은 4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한 중국인 유학생은 설문 조사에서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답은 2명이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하는 답은 5명이고,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는 답은 23명으로 나타났다.

IV. 한국인과 중국인 유학생의 인사

화행 양상 분석

4.1. 인사 화행의 공통점

한국인과 중국인 유학생의 인사 화행 양상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인과 중국인 유학생은 ‘회사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직장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말’에서 모두 ‘안녕하세요’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려고 다음 날 휴가를 떠나기 전 직장 동료에게 하는 인사말’에서 한국인과 같이 ‘수고하세요’라고 응답하는 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회사에서 회의가 마무리되고 회의 참여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는 인사말’에서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자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회식할 때 부장, 과장, 대리 등 관리자가 부하 동료에게 술잔을 들어 건

배 시 하는 인사말’에서 한국인 하고 동일하게 ‘수고했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여주었다. 또는 ‘직장에서 상사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상사에게 하는 인사말’에서 한국하고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어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회사 등 장소에서 직장 환송회에서 후배가 사직한 선배에게 하는 인사말’에서 한국인하고 동일하게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식당 등 장소에서 아르바이트 중에 손님과 작별할 때 하는 인사말’에서 한국인하고 동일하게 ‘안녕히 가세요’라고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식당 등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말’에서 한국인하고 같이 ‘어서 오세요’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다만, 중국인 유학생 2명은 ‘안녕히 가십시오’를 선택하였고, 6명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선택하였다. 국립국어원에 따라 ‘안녕히 가십시오’와 ‘어서 오십시오’는 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아르바이트가 마무리되고 먼저 퇴근하려는 알바생이 사장님께 인사하는 인사말’에서 한국인과 동일하게 ‘내일 뵙겠습니다’라는 응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보인다.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마무리되고 먼저 퇴근하려는 알바생이 사장님께 인사하는 인사말’에서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은 ‘수고했어’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응답자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용어는 황병순(1999:14), 문금현(2009: 97)에서 먼저 퇴근할 경우는 “먼저 들어 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용해야 적절하다고 하였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등 인사표현은윗사람에게 사용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한 중국인 유학생은 상황에 맞게 인사하지 못한 것을 확인되었다.

4.2. 인사 화행의 차이점

‘회사의 관리자로서 다른 팀원에게 발표 자료를 받았을 때 하는 인사말’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수고했어요’라고 응답하는 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반면 한국인은 ‘수고했어’라고 응답하였다. 또는 ‘직장에서 상사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아직 남아 있는 상사에게 하는 인사말’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먼저 가보겠습니다’라고 응답하고, 반면 한국인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응답하여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직장에서 멀리

서 방문하러 온 거래처 손님을 맞이할 때 하는 인사말'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반면 한국인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선택하였다. '식당에서 손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인사말'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주문하시겠습니까?'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나타냈고, 한국인 기타를 선택하여 '주문하시겠어요'라고 응답하였다.

이상 인사 화행 조사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인과 같은 답을 선택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기본 사항에 따라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은 대부분 고급이고, 한국에서 거주 기간도 긴 편이다. 그래서 한국인하고 많은 공통점을 보여주고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차이점을 나타난 원인은 심층 인터뷰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첫 번째 중국인 유학생은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로 인해 회사 문화를 적합한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한국인과 다르게 응답하였고 실제 생활에서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게다가 식당 등 점포를 많이 방문하였지만, '주문하시겠습니까?' 라는 인사말을 더 많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자신도 '주문하시겠습니까?'를 많이 선택하였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인은 '주문하시겠어요'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담화 완성형 테스트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직장 내 인사 행위를 화행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과 다르게 선택한 답에 대해 물어보고 검토하였다. 따라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어떻게 인사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사표현이 한국인들의 인사표현과 어떻게 다른지를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체로 한국인과 유사한 인사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어 능력이 높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몇몇 상황에서는 한국인과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주로 유학생들의 학업 중심 생활과 직장 문화에 대한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한 인사 화행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게다가 한국어 교육과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인사 화행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가 진행한 성과가 있으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없어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인사표현은 말하는 사람 입장과 듣는 사람 입장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듣는 사람 입장을 같이 연구하지 못해서 아쉬운 점이 남았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일반 회사직원에서 사용한 인사표현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용한 인사표현을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공장, 근로 현장, 등 기타 직장 장소 대상으로 세분화하여 다루지 못하여서 나중에 연구에서 검토하겠다.

References

- [1] Byeong-Soon Hwang, "A Study of Korean Greetings", *Baedalmal* 25.1: 1-25.1999.
- [2] Chen, Kuanchao and Zhang, Weiwei, "A Study on Teaching Korean Synonyms of 'Sugo' and 'Gosaeng' for Chinese learners," *The Journal of Language & Literature*, vol. 91, pp. 651-698, 2022, doi: 10.15565/jll.2022.6.91.651
- [3] Cho Eunju, Go Eunjeong, "The Speech Act of Greeting among Koreans and Korean Language Learners," *The Korean Society of Bilingualism*, no. 60, pp. 287-322, 2015.
- [4] Gwang Geu Bhark, "A Study of Korean Greeting Expressions: from the Daily Greeting Expressions," *The Linguistic Science Society*, vol. 19, no. 3, pp. 21-48, 2012.
- [5] Hwang, Sunyoung, and Ha, Jihye. "A Study on Greeting Speech Acts of Korean Native Speakers and Vietnamese Learners of Korean." *Proceedings of the Discourse and Cognitive Linguistics Society Conference*, 45-50.2023.
- [6] Kim Mi-Ryung, "A Study on the Speech Act of Greeting in Korean Language," *Urimal*, no. 31, pp. 195-228, 2012.
- [7] Kim Seon-Jung, Kim Yei-Ji., "A Study on the

- Speech Act of Greeting for Chi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verbal and non-verbal approach," *The language and Culture*, vol. 7, no. 2, pp. 55-79, 2011.
- [8] Moon Keumhyun, "The types and features of Korean greeting expressions," *International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1, pp. 93-122, 2009.
- [9]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1992), *Explanation of Standard Speech*,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10]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1), "Standard Language Etiquett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 [11] Sun Fengwei,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Greeting Expressions - Focused on Meetings and Farewell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2019.
- [12] Zhang Weiwei and CHEN KUAN CHAO, "A Study of 'Sugo' and 'Gosaeng' for Chinese Korean Learners.," *The language and Culture*, vol. 18, no. 4, pp. 173-210, 2022.